

## 설교자 회의

### 1. 본문: 시편 8:1~9절

제목: 아름다운 주의 이름

대지 1. 사람과 인자를 돌보시고 2.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한줄 요약 “하늘과 달과 별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존재인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

연구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의 메아리인 듯한 내용 때문에 흔히 ‘창조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응시하는 동시에 모래알보다 더 작은 자신의 왜소함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왜소함이나 인생무상을 느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토록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야말로 벅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sup>1)</sup>

먼저 1~2절을 보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사회적 약자들로 대표되는 데 이들이 울부짖는 이유는 ‘주의 대적’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그랬고,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시대에 역대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마냥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7~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 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벽,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르짖음으로 성체를 세워 보복자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9절까지는 만물 보다 뛰어난 인간의 존귀함을 찬양하는데, 사실 이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1) 카리스 주석 시편 1권 P.234

세계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찬양의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기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요 백성이 된 후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음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목상할 수 있었던 때는 그가 가장 위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어린 아이로 젖먹이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 2. 본문: 누가복음 6:1~11절

제목: 예수님이 알려주신 안식일의 의미

대지 1. 안식일의 주인 2.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한줄 요약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이다.”

연구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 논쟁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일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 안식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8절**을 보면 창조를 기억하여 지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삶에서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여 쉬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그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먹은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의 상 위에 진열해 놓는 떡인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피난길에 너무 고단하고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굶어 죽지 말고, 인간의 필요 앞에 성경의 계명들이 오히려 섬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분과 법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세우신 이가 죽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앞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지 말고, 인간의 필요 앞에 성경의 계명들이 인간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법에 저촉된 자를 죽이지 않고, 법을 만드신 이가 법에 저촉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만든 법에 저촉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날이 누군가를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내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혹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주일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과 행위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3. 본문: 누가복음 10:25~37절

제목: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대지 1. 임무보다 사랑을 2. 나와 같이 하라

한줄 요약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신자에게 주어진 임무보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웃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사랑하라.”

연구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멸망당한 북 이스라엘은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평민들만 남겨지자 앗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장소가 사마리아’입니다.

반면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던 지도자와 귀족들이 귀환하여, 성전과 나라를 재건합니다. 후에 통일 국가가 되었지만, 회복한 유다사람들은 여러 민족과 섞여 함께 산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는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분명 크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한 것, 자비를 베푼 것, 그것이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 지는 지역이나,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듯이 제사장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일로 도망가면 자기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던 자들은 모두 임무에 빠져 사랑을 잊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25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도 더하시지 않고 ‘그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100점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여 지는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었지, 그것을 살아내는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생을 책임 있게 걷는 동안 우리는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만 갖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약속을 소유했다면,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고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답을 아는 자로서 답이 요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영광된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4. 본문: 누가복음 19:1~10절

제목: 놀라운 부르심

대지 1.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2.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

한줄 요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라운 이유는 자격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연구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후에 이전에 예수님을 칭송하던 세력들은 어디가고,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수근 거립니다. 19:7절을 보시면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고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앞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환호했으면서, 삭개오를 용서해주실 때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수근 거렸을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즉 자신을 낳은 이름입니다.** 앞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 그 왕권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자로서, 큰 권세를 지닌 영광스러운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섬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라고 불리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멸망 밖에 없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러 왔다는데 대하여

는 당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르심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15~17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우리가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변화되어 상상 이상의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을까요? 소경을 낫게 하는 힘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사건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네가 알고 있고, 자기네가 기대하고 있는 종교가 제한된 자의 우월감을 확인시키는 힘이라는 기준으로, 그래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처벌하여 확인하는 힘이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들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sup>2)</sup>

**말이 어렵지만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누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일에 자신들의 우월함과 다름을 확인하는 힘으로 그 기준인 사랑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주신 사랑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하였는데, 과연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우리는 삭개오처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갖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증거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십자가로 세우는 나라 박영선 P.163